



[산업] 잘 달린 K배터리 북미 EV 시장 선점 박차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48.43 (+19.26)	코스닥	693.89 (-0.24)
금리 (미국 3년)	4.118 (-0.040)	환율 (원/달러)	1419.20 (-4.60) (4일)

# 美·中 턱밑 추격에도 지원법 표류... 위태로운 '초격차'

## K-반도체를 지켜라

### 〈上〉 국가 경쟁력 '메모리'

대한민국 핵심 산업, 반도체가 위협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더해,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K-반도체를 지켜라' 시리즈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현실을 짚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삼성, 노하우와 투자 바탕 압도적 초격차 유지했지만 메모리 시장 침체 본격화 美·中 추격 등에 위기감 ↑

메모리 산업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성장 동력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전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을 자랑한다. 메모리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반도체 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자칫하면 반도체 생태계는 물론 국가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 ◆ 메모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반도체 역사는 삼성으로 썩을 뻔했다. 1974년 국내 최초 웨이퍼 공장인 한국반도체를 인수, 이듬해 LED 손목시계용 IC를 생산하며 첫 발걸음을 땀다. 1983년 11월 64K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메모리 신화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힌 '도요 구상' 이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고밀도집적회로(VLSI)를 생산하는 국가로도 발돋움했다.

1984년에는 기흥 라인1을 오픈하며 차세대 D램 개발을 본격화,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며 전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1993년에는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함께 업계 최초 200mm 웨이퍼 제조 라인을 가동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지속, 지금까지 글로벌 메모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움디아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43.4%다. 2010년 업계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이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D램 경쟁력은 오랜 노하우와 막대한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이다. 기흥과 화성, 평택 등 선제적으로 대규모



尹대통령 부부, 추모 미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뉴스스

설비를 조성하고, 매년 매출의 10%에 가까운 연구 개발 비용을 들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와 비교해도 D램 기술력이 6개월 이상 수준으로 높다고 보

고 있다. 업계 처음으로 EUV를 도입하는 등 미세 공정 뿐 아니라 성능과 관련한 부문, 수율까지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미디어 '제7회 뉴테크놀로지포럼'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인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비서,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르시아타워 페럼홀
- 강 연 : 김경대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김영준 SKT A.(에이닷)대화 담당,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AI협력팀 상무, 윤영진 네이버 이사업개발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부설연구소 AI연구팀장, 최화민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대차그룹, 美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의견서

# 정의선, 미래 격전지 美시장 공략 속도 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완성차 업체의 미래 격전지인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힘을 싣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안 추진을 고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장문을 제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와 관련

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IRA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은 회사 내부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IRA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

hicle) 세액공제' 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의견 전달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계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

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 시 세액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정 회장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올해 미국 방문만 6번에 달할 정도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정 회장은 26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

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기공식에서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그룹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았다"며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IRA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 전략에 발맞춰 미국

에 전기차 전용부품 생산거점 5곳을 새롭게 짓기로 했다. 한국과 유럽(체코)에는 있지만, 북미 지역에 만들어지는 첫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이다. 이를 위해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입한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PE)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 등 3개 공장을 HMGMA가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버너에 세우고, 현재 운영 중인 앨라배마·조지아주 공장 인근에도 배터리시스템과 PE 모듈 공장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상현, '尹 석고대죄' 박지원 직격... "젊은 죽음 발판 삼아"
- ▲ 민주 "용산구 특위 구성 제안, 與 의장이 비협조" /사진 뉴스스

- ▲尹, 생환 광부에 감사 카드 "슬픔 빠진 대한민국에 새희망"
- ▲ 윤 주일대사, 강제징용 문제 관련 "피해자 협의, 설명 진행 중요"



- ▲ 이재명 "자금시장 얼어붙으며 유동성 위기"... 흥국사태 후폭풍 경고 /사진 뉴스스
- ▲ 7일 유엔 참전용사·가족 114명 방한... 현충원 참배 등